

뿌리산업 종합발전 '속도'

익산 제2일반산단, 특화단지 지정... 기업 간 공동사업 발굴로 시너지 효과 창출 도모

익산 제2일반 산업단지가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전북도는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에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해 서류심사와 발표심사, 현지 확인심사 이후, 이날 2일 최종 뿌리산업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36개 뿌리기업이 포함된 익산 제2일반산업단지가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뿌리산업은 도내 주력산업(자동차, 조선, 기계 등)에 있어 최종 제품의 품질 및 생산성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기반산업으로, 주조, 금형, 용접, 소성 가공, 열처리, 표면처리의 뿌리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를 제조하는 업종을 이른다. 전북도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도내 뿌리산업의 대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차 전북 뿌리산업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뿌리기업 및 인프라 집적화를 위한 뿌리산업 특화단지 활성화를 적

극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익산시, 전북 뿌리산업연합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도내에서 뿌리기업의 집적화가 가능한 특화단지 확대를 위해 탄탄한 사업기반을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는 익산 제2일반산업단지를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 신청하여, 그 성과를 거두게 됐다. 산업부에서는 뿌리기업의 집적화와 협동화를 촉진하여 뿌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지정 중이며, 뿌리기업 집적지를 대상으로 단지 역량, 추진방향,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난해까지 총 29개의 특화단지를 지정하였고, 올해는 익산 뿌리산업특화단지를 포함한 4개 단지를 추가 지정했다.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 시 폐수 처리시스템 및 공동물류시설 등 기업 간 공동활용시설 구축이나, 식당 및 주차장 등 공동편의시설 구축, 기업의 공동 혁신활동 수행 등을 위한 국비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전북도와 익산시는 익산특화단지 내 뿌리산업을 근간으로 다수의 제조업이 집중되어 있는 배후 장점을 살려 기업 간 소통 및 연계강화를 통해 공동 활용시설·편의시설 구축 사업 등을 발굴하여 내년부터 특화단지 지원사업 신청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나혜수 주력산업과장은 "익산시와 적극적인 협업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향후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뿌리기업에게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혁신산단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익산 제2일반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비롯해 도내에는 지난 2015년 군산 국가산단, 완주 금형특화단지, 2018년 익산 주얼리 특화단지 등 총 4개의 특화단지가 지정되어 있다. /김진성기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2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평등을 일상으로: 함께 한 100년, 함께 할 100년'이라는 주제로 열린 2019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송하진 도지사과 임양순 전북여성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양성평등을 위한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 시행 5개 업체 참여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광문)는 지난 1일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 사업시행자 공모 마감 결과 총 5개 사업시행자 컨소시엄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 사업은 총 면적 1.27km², 발전 규모 90MW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건설 운영하는 사업으로 건설 기간은 2019년 8월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운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41년 12월

31일까지 20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번 발전 사업은 새만금개발공사 설립(18.9.21)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5월 31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한 2백만평 규모의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과 함께 속도감을 붙여 넣어 놓을 전망이다. 또한 사업 시행 후 약 2,600명에 달하는 직·간접적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위기 극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 공모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부응하고,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새만금개발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는 오는 17일 선정할 예정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북미, 사실상 적대관계 종식·평화시대 본격 시작 선언”

文 대통령,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 진전 선순환 관계 다시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세계를 감동시킨 북미 정상간 판문점 회동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SNS를 통한 과격적인 제안과 감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과감한 호응으로 이뤄졌다”며 “그 과격적 제안과 과감한 호응은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6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기존의 외교 문법 속에서 생각하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그 상상력이 세계를 놀라게 했고, 감동시켰으며, 역사를 진전시킬 힘을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과 전 세계인들은 판문점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장면을 지켜봤다”며 “정전협정 체결 68년만에 사상 최초로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 정상이 군사분계선(MDL)에서 두 손을 마주잡았고, 미국의 정상이 특별한 경호조치 없이 북한 정상 안배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남

북미 삼자회담도 이뤄졌다. 비로소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그에 앞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2m에 있는 최전방 CP를 방문했다. 한미 양국의 대통령이 함께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 건 사상 최초다. 양국 대통령이 군복이나 방탄복이 아닌 양복과 넥타이 차림으로 최전방 CP를 방문한 것도 사상 최초”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지 미국 지휘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간 9·19 군사합의 이전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긴장 상황과 그 이후 평화로워진 상황 비교해서 설명했다”며 “저는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40km 거리의 서울과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에만 10만 이상의 미군이 상시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눈 앞에 뻔히 보이는 개성공단이 남북경제와 우리 안보에 가져다줬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화상머리고지에서 진행 중인 유해발굴 작업에서 발

굴된 유해를 함께 참관했다. 대한민국에 있어 안보와 평화의 절박함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 모든 일들은 정상들간의 신뢰 뿐 아니라 판문점 일대 공동경비구역(JSA)이 비무장화 되는 등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크게 완화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제가 평소에 늘 강조해왔던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 진전이 서로 선순환 관계에 있던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상상력은 문화예술이나 과학기술 분야 뿐 아니라 정치 외교에 못지 않게 필요하다”며 “특히 중대한 국면의 해결을 위해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실로 어려운 역사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끊임없는 상상력의 바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포함되지만 우리 정치에 있어서도 부족한 것이 상상력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거의 정치 문법과 정책을 과감히 뛰어넘는 풍부한 상상력의 정치를 기대해 본다”고 했다. 또 “정부 각 부처에서도 우리 경제와 민생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선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 과감한 정책적 상상력을 더 풍부하게 발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뉴스

이춘석 국회의원, 홀로그램 핵심기술개발사업 예타통과 후 개발사업 시동걸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국회 기재위원장)은 2일 오전 10시 30분경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5대 핵심 기술 개발(1505억원), 4개 분야(전북2, 경북2) 실증(312억원) 등 1817억원 확보(당초 요구액의 45%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전국적으로 홀로그램 전문가는 몇몇되지 않을 정도로 전문가가 거의 없는 형편이기에 익산 원광대에서 홀로그램기술개발 사업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우수한 전문가를 초빙하여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면 타시군보다 더 많은 기술개발연구 비용을 확보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익산의 경우는 가상현실 및 차량HUD 분야이고 구미의 경우는 문화재복원 및 불량검사 분야 등에서 홀로그램 사업화 실증분야

를 주로 하도록 되어 있고 홀로그램기술개발을 하기 위해서 익산에 있는 원광대에 홀로그램 전문가를 초빙하여 기술개발하는 데 전력을 다하면서 홀로그램 핵심기술개발할 수 있는 R&D 연구예산을 공모해서 최대한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어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지자체, 언론인 및 지역주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어야 확보된 기술개발예산을 익산으로 많이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지역문제해결 위한 '전북도 리빙랩 네트워크 발족식' 개최

전북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에서는 2일 전북도내 1개 기관이 참여하는 전북 리빙랩 네트워크 발족식을 열고 전북 리빙랩의 실험의 장을 더욱 확대하는 창립회의 및 발표, 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리빙랩(Living LAB)이란 생활속 현장 곳곳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생활 속 실험실을 뜻하며, 주민과 전문가, 활동가 등 주체들의 전 과정 참여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함께 해결을 해가는 사회혁신모델을 말한다. /김진성 기자

이번 발족식 1부에서는 전라북도 리빙랩 네트워크 공동선언과 창립회의를 진행하고, 2부에서는 '전북 리빙랩 네트워크의 시작과 미래'라는 주제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성지은박사 및 전북연구원 이지훈박사가 한국리빙랩 활동현황과 한국리빙랩네트워크, 전북 리빙랩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